

<우수작> 시트콤의 정형화를 거부하는 안녕, 프란체스카

김혜옥

90년대 대학생들의 사랑과 우정을 맛깔나게 그려낸 남자 셋, 여자 셋의 성공을 선두로 그의 계보를 잇고 있는 논스톱 시리즈가 현재까지 시리즈5탄까지 이어지면서 시트콤에 대한 식상함과 구태의연하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다. 논스톱은 남자 셋, 여자 셋의 흥행공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으며 시트콤의 장르를 고정적이며 불변흥행공식에 가둬둠으로써 시트콤의 무한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0대, 20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초기의 논스톱시리즈의 명성을 얻고자하는 현재 논스톱의 욕망은 새롭고 스스로의 창조적 발전에 둔해있다. 그 외 타 방송사의 가족을 포맷으로 한 시트콤 역시도 초기의 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혹평을 벗어 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뻔한 캐릭터와 스토리는 이미 신선함과 웃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안녕, 프란체스카는 루마니아 출신의 뱀파이어들의 한국 정착기를 그린 시트콤이다. 안녕, 프란체스카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한물 간 소재, 흡혈귀를 통해서 보다 강력한 유머를 선사한다. 시트콤에서 보여 질 수 없을 것 같은 소재에 대해서도 대담성을 보인다. 물론 그 대담성에는 무모함이 없다. 촌촌히 잘 짜여진 줄거리와 살아있는 캐릭터로 기존의 시트콤이 보여주는, 모험을 하지 않는 비겁한 캐릭터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시트콤의 소재는 가볍고 보편적인 것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일상생활을 재미있게 그려내기 위해 기존의 시트콤에서 보여주는 웃음은 직접적이고 획일적이었다. 또한 캐릭터와 에피소드는 웃음을 자아내기 위한 장치적 도구로 전락해 버린 느낌이였다. 하지만 안녕, 프란체스카에서 보여주는 웃음은 색다르다. 독특한 블랙유머와 은유적 언어, 참신한 실험 감각과 파격적인 유머, 황당한 설정과 놀라운 반전은 매 회를 거듭날수록 시트콤의 다양성을 제시해 줌으로써 시트콤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상처 안고 살아가는 흡혈귀를 통해서 만져지는 인간의 슬픔과 욕망

대왕고모 소피아, 외모로만 본다면 어린 중3소녀이지만 실제로는 수 천년을 살

아온 뱀파이어계의 어른신이다. 겉모습은 영락없는 깜찍 발랄한 소녀지만 그녀는 뱀파이어 가족들을 통제하며 중심을 지킨다. 그러나 인간세상에서의 소피아는 영락없는 말쑥꾸러기 소녀이다. 소녀가 아니지만 소녀인 소피아의 욕망은 여성이 가지는 성숙한 아름다움이다. 수천 년을 살아도 어른이 될 수 없는 현실은 소피아에게는 상처이면서 욕망이다.

소녀들은 꿈을 꾸다.“아름다운 여자가 되게 해주세요. 진정한 사랑을 하게 해주세요.” 소녀와 완전한 여자로 성장하고 하고 싶은 욕망에서 생기는 괴리감, 뱀파이어를 지배하는 최고 권력자인 안드레 대교주의 사랑을 받고 선택되어지지만 소녀는 불안하다. 그것은 완전한 여자가 아닌 언제나 소녀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검은 긴 생머리를 흔들리며 시종일관 오싹한 표정을 짓는 프란체스카, 그녀의 욕망은 모성이다. 과거의 그녀는 아기를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했던 상처를 영원히 간직하며 살아가는 뱀파이어다. 그녀의 차가운 표정과 두일에게 행하는 섬짓한 장난은 과거의 상처가 되물림 되는 것에 대한 조건반사 같은 것이다. 즉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야 하는 슬픔에 대항하여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의 시니컬한 미소는 가슴이 아프다.

시트콤의 제목처럼 [안녕, 프란체스카]에는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된다. 첫 번째는 만남의 의미이며 두 번째는 헤어짐의 의미이다. 프란체스카를 통해 인간의 슬픔을 관통하는 것은 만남과 헤어짐이다. 뱀파이어 법으로 금지된 인간 두일을 물게 된 프란체스카는 500년을 살면서 가장 잘 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헤어짐을 두려워해 만남을 거부하는 나약한 모습이 아니다. 그녀의 욕망이 모성이듯이 그녀는 강인한 여성상 모습을 취한다. 그리하여 프란체스카는 상처를 통해 성숙되어진다.

마흔이 되도록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한 노총각 인간 두일, 가진 것 하나 넉넉하지 않고 소심하기까지 하지만 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다. 그는 완전한 뱀파이어도 아니면서 인간도 아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 정체성을 상실한 두일의 욕망은 가족에 대한 갈망이다. 그리하여 그의 상처는 외로움에서 기인한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 인생이라는 긴 터널을 걸어온 두일의 얼굴에는 고단함이 묻어 있다. 그 고단함을 씻겨준 것은 인간이 아닌 뱀파이어들이다. 착하고 따스한 남자지만 능력과 외모중심사회에서 그는 사회의 이방인이다. 안녕, 프란체스카는 바

로 그들의 이야기다. 모순된 한국사회를 통쾌하고 풍자하고 비틀어 주지만 사회의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안녕, 프란체스카의 시선은 진솔하며 따스하다.

프란체스카와 두일은 외형적인 이별을 하지만 안녕이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그들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할 것이다. 과거 프란체스카가 사랑했던 아르테니 백작과의 이별, 두일과의 이별, 그들은 또 만날 것이며 이별할 것이다. 그리하여 두일의 사랑 하고, 받고 싶은 욕망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자신을 위해 인생을 즐기는 엘리자베스, 젊음과 아름다움을 가진 그녀의 결핍은 표면적으로는 안보이지만 그녀의 화려한 남성편력에 드러난다. 당당하고 아름답지만 그녀의 사랑은 매번 실패로 끝이 난다. 젊고 아름다운 그녀가 사랑에 굶주리며 실패하는 것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외모지상주의에 빠진 현실 비틀기이다. 그녀의 욕망은 과거의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되찾는 것, 그러나 그녀의 욕망은 끝내 이루어 지지 않는다. 사랑은 완전할 수 없음에 엘리자베스의 사랑은 매번 실연의 아픔을 겪는다. 그리하여 그녀의 욕망은 늘 2% 부족하다.

뱀파이어를 지배하는 최고 권력자인 안드레 대 교주, 유일한 구원자이며 소피아의 연인인 그는 뱀파이어와 인간 사이에서 생기는 비밀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쥐고 무거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이다. 그럼으로 그의 캐릭터는 살아난다. 결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표현되는 안드레 대 교주의 행동은 엉뚱하고 기이하다. 모든 핵심과 임무를 띠고 있음에도 그는 유유자적 방관적 태도를 보인다. 두일에게 생계를 맡긴 채 매번 도박으로 집을 날리고 사건을 일으키며 도망가는 그의 불성실, 무책임한 행동은 사회에 대한 반항으로 해석된다. 질서와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의 틀을 그는 몸으로써 거부한다. 그래서 그가 겪는 상실의 아픔은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감에 따르는 압박이다. 그리하여 그의 욕망은 결속 없는 자유이다. 각박한 현실, 세상물정에 어두운 안드레 교주는 자존심을 버리면서 순응적 태도를 보이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

그가 추구하는 인생은 결과물에 의존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만을 위해 과정의 필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그가 결과에 대해 연연해하지 않는 것은, 결과물 결국 그것은 책임에 대한 물질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과정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의 태도가 유연하고 무책임해 보이지만 그가 보여주는 과정에 대한 성찰은 의미 있다.

이처럼 안녕 프란체스카에서는 인간보다 더 진짜 인간 같은 흡혈귀들을 통해 인

간의 잠재되어 있는 내면의 욕망을 읽어냈다. 인간도 아니고 영혼도 아닌 그 중간 뱀파이어를 통해 인간의 희로애락을 표현해 내는 시도는 새롭고 기발하다. 또한 슬픔과 욕망에 일그러져 있는 인간의 단면을 차가운 시선으로 훑으면서도 웃음과 감동을 잃지 않는 것은 인간애에 대한 희망으로 보여진다.

- 흡혈귀를 통해서 모순된 사회 풍자하는 안녕, 프란체스카

인간스러움을 물씬 풍기는 뱀파이어들, 그들이 보여주는 세계는 인간 세상의 축소판이다. 특유의 블랙유머로 한국사회를 통쾌하게 풍자하는 안녕, 프란체스카에서 보여주는 웃음은 재미를 넘어서 삶의 깊이가 느껴진다. 각각의 다양한 에피소드에서 보여주는 이 시대의 모습을, 가벼우면서도 가볍지 않게 그려내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보여주는 웃음에는 무게가 있다. 무겁지만 결코 가라앉지 않는 웃음의 아이러니함이 바로 안녕, 프란체스카의 매력이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현실패러디를 통해 보다 강력하게 사회를 비틀어 낸다.

인간사회의 각박함과 물질에 어두운 안드레 대주교가 돈을 벌려고 길거리로 내몰리면서 자존심을 버리고 기타를 쳐야했을 때, 구멍 뚫린 그의 속옷사이로 보여지는 것은 세상풍파에 짓눌린 나약한 인간상이었다. 무엇보다도 모순된 사회 속에서 인간의 욕망과 집착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는 Easy Come Easy Go편이다. 두일과 안드레 교주에게 의문의 돈 가방이 맡겨지고 목숨을 담보로 돈가방의 지켜내려는 두일과 돈에 집착을 보이며 끊임없이 두일을 유혹하는 뱀파이어들, 결국 뱀파이어들은 무섭게 돈을 써버린다. 돈을 다 써버린 후 끊임없는 욕망에 충족되지 못하는 그들의 얼굴은 탐욕에 그을려 있다.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 필요하지만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는 물질, 그 물질에 대한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 끝까지 돈 가방을 사수하는 안드레, 돈에 대한 미련이 없는 두일이나, 돈이라는 물질에 집착을 보이는 소피아와 프란체스카, 엘리자베스의 모습에서 탐욕스러운 인간의 욕망이 보여진다. 그러나 안녕, 프란체스카에서 욕망에 그을린 인간을 바라보는 뱀파이어들의 시선은 차갑지만은 않다. 표면적으로 그들의 모습에서 사회의 부조리와 인간상을 꼬집지만 곳곳에 포진해 있는 삶의 진실성을 놓치지 않고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 영원한 삶 속에 갇힌 영혼들을 통해 삶을 깊이를 더듬는 시트콤

뱀파이어들은 외형적으로 인간과 흡사하지만 인간이 아니다. 그들은 뱀파이어가 되는 것으로 불멸의 영생을 얻었다. 만남이 이별을 준비하고, 이별이 다시 만남을 기약하듯이 우리가 현재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은 언젠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영생을 꿈꾼다. 그러한 인간의 욕망은 안성택을 통해 보여진다. 뱀파이어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그녀는 사랑하는 권과 영원한 삶을 살기위해 뱀파이어가 되려고 한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가는 한다는 것은 영원히 슬픔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하는 고통이 영원히 반복되고, 함께 늙어갈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하는 고통을 겪는 프란체스카와 엘리자베스, 그녀들의 눈물은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늙어가고 죽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상처의 눈물이다.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나 아픔을 짊어지고 가는 그들을 통해 인간에게는 어제가 있었고 오늘이 있으며 내일이 온다는 것에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안녕, 프란체스카는 종래의 시트콤이 일상의 단편적인 모습을 통해 삶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이상의 삶의 깊이를 더해준다.

- 희극과 비극 사이에 공존하는 웃음

시트콤은 영어로 situation comedy라 일컫는다. 그것은 극의 형태를 띤 코미디라는 것이다. 또한 시트콤이 외형적으로는 드라마적 성향을 띠고 있지만 본래 코미디라는 장르에 속해 있는 것을 말한다. 물론 안녕, 프란체스카에서도 탄탄한 스토리로 다양한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시트콤이 드라마적인 성향으로 치우쳐서 드라마와 차별성을 보이지 못한 채 허덕이고 있다면 안녕, 프란체스카는 특유의 블랙유머와 기존의 개개인이 가지던 성향을 과감히 버리고 캐릭터에 몰입함으로써 시트콤이 지녀야 할 웃음의 미덕을 지니고 있다.

안녕, 프란체스카에서 유도하는 웃음은 가진 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상처 받으며 살아가는 모두의 것이다. 그래서 안녕, 프란체스카에는 희극만이 존재하지 않는다. 풍족하진 않지만 가족 그 이상의 의미를 공유하는 두일과 뱀파이어들을 통해 웃음이 희극과 비극을 통해 표현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트콤에서는 희극과 비극 사이에서 인간이 겪어내야 하는 고민과 번

너가 코미디와 잘 혼합되어 있다.

유전자 변이로 죽음을 앞두면서도 끝내 두일은 프란체스카에게 웃음을 잃지 않을 것을 원한다. 그리하여 프란체스카는 웃으면서 두일을 보내주었다. 슬프지만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추억이 있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별일 것이다. 슬프지만 웃음이 나고, 웃음이 나지만 슬픈 우리의 이야기들, 그들과 우리의 이야기가 눈물이 나지만 금세 미소가 드리워진다. 그래서 웃음은 언제나 비극과 함께 한다.

시즌1,2를 마치고 시즌3을 시작하는 안녕, 프란체스카 -또 다른 시작과 과제

안녕, 프란체스카 시즌 1,2가 끝이 났다. 한국에 온 루마니아 흡혈귀들이 가족을 이뤄 살아간다는 독특한 설정으로 마니아층을 거느리며 평단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소피아(박슬기), 프란체스카(심혜진), 두일(이두일), 엘리자베스(정려원), 안성택(박희진), 안드레 대 교주(신해철), 장광효 디자이너, 이주현, 이수나 등 다양한 연령층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무엇보다도 스타시스템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스타성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주체성이 돋보인다.

프로그램 기획 초기부터 안녕, 프란체스카가 시즌3으로 이어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 만큼 시즌 3을 향해 질주하는 안녕, 프란체스카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즌 3에서 새로 영입된 캐릭터들은 시즌 1, 2의 소피아와 프란체스카를 제외하면 모두 새로운 인물이다. 카사노바에게 정기를 뺏긴 이사벨(김수미), 인간이 되고 싶은 다이아나, 뱀파이어 헌터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강두, 엄청난 비밀의 키를 쥐고 있는 꼬마 인성, 시즌1,2에서 비이상적 여성상을 코믹하게 그려냈던 안성택을 대신하는 변태적인 남성상을 보여주는 김도향등 새로운 뱀파이어들의 통해 보다 강력한 인간사회를 풍자하려는 듯 하지만 과장된 표정 연기와 극한의 상황은 마치 슬랩스틱 코미디를 보는 것처럼 부담스럽다. 시즌 3에서 느껴지는 변화는 대중성의 강화이다. 시즌 1,2가 마니아층에게 지지를 얻었다면 시즌 3은 마니아층은 물론 다양한 시청자 층의 공감을 이끌어 내려고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캐릭터 중심으로 극을 움직여 나가는 드

라마적인 요소가 눈에 띈다. 결국 안녕, 프란체스카는 점점 더 대중적으로 변해간다. 대중적인 코드로 넓혀가려는 시도는 용감했을지는 몰라도 시즌 3의 앞길은 더 이상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그렇다면 시즌3의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로 대중성의 강화를 위한 홈드라마적인 요소를 버려야 한다. 초창기의 안녕, 프란체스카가 돋보인 것은 기존의 시트콤이 가지는 정형화된 틀을 거부하며 독창적인 장르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드라마에서 조차 코미디요소를 포함하는 등 가벼워지는 상황에서 시트콤이 드라마화 되면 시트콤은 차별성 잃고 설 자리를 잃고 만다. 시즌3의 다양한 연령층을 흡수하기 위한 대중화는 자칫 평이해 질 수 있음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따라서 시트콤에서는 다양한 소재로의 접근을 시도하며 시트콤에서의 코미디 영역을 넓혀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시즌 3에서 보여주는 현실 패러디의 방식이다. 시즌 3의 패러디는 단순한 현실의 모습을 모방하기에 급급하다. 시즌1,2에서 보여주는 현실 패러디가 특유의 블랙 유머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으면서 사회를 풍자했다면 시즌 3에서 보여주는 현실패러디는 웃음의 주기 위한 곁핥기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지하철 개똥녀]를 패러디를 한 [지하철 빗자루녀]에서는 국민의 영웅으로 추앙받았던 프란체스카를 공공의 적으로 한순간에 깎아 내린다.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도 단순한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아 현실 패러디가 주는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패러디를 통해 웃음을 만들어 내기 위한 장치적 도구가 아닌 색깔 있는 패러디를 통해 사회문제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청춘 시트콤이 스타의 등용문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시트콤에서 신인을 등용하고 있다. 스타성은 보장 받지만 익숙하고 때론 식상하게 느껴지는 점에서 신인을 씬으로써 새롭고 신선함을 부여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연기력 검증의 부재이다. 안녕, 프란체스카 시즌 1,2는 연기력을 검증 받은 연기와 새롭게 선보인 신인들의 연기력이 돋보였다. 물론 시즌 3에서 이사벨 역의 김수미의 탄탄한 코믹 연기와 현영의 독특한 억양은 주목을 끌지만 시즌 3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즌1,2에서 개성 있는 연기로 시트콤의 코믹 연기에 빛을 더한 박희진처럼 상상 이상의 웃음을 발산해 낼 수 있는 배우를 발굴함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연기력이 검증된 연기와 가능성 있는 신인의 조화로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다양한

캐릭터들을 양산함에 힘써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시트콤에서 보여주는 부정적 현상으로는 안정적인 시청률과 공감을 얻고자 시트콤의 발전적 대안보다는 이미 성공한, 호응도가 높았던 케이스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이미 성공 했던 캐릭터를 배우만 교체한 채 다른 버전의 새 프로그램으로 '새롭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장수 프로그램으로 써 거듭나려고 한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생명력이 길어진다고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없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이야기에 목이 말라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시청자들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줘야 한다.